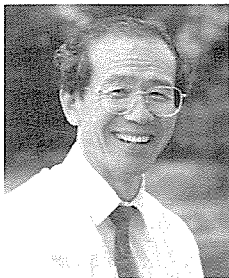


우주선(space craft)을 타고 외계로 나간 다해도 대기의 일부분을 지참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렇듯 사람의 생명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이 기상학이다.

지금 지구 곳곳에서는 돌출하는 기상이 변으로 세계인들이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해 생기는 인공적인 기후변화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50년 전통 ... 정회원만 3천여명 한국기상학회

1963년 12월19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60여명의 발기로 창립된 한국기상학회는 현재 5백여명의 회원이 활약하고 있으며 25개 기관이 특별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한국기상학회는 해마다 4차례 학회지를 발간하고 정기 학술발표회를 열면서 우수논문을 발표한 회원들에게 특별상을 주어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洪性吉
(한국기상학회 회장)

온실기체의 과다배출은 지구의 자정능력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되었다.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국지적 집중호우의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양 극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층 오존량의 급격한 감소의 결과로 이미 오존홀이 출현했고, 점차 넓어지고 있어 이제는 햇빛에의 피부 과다노출은 생명을 거는 모험으로까지 비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수강산 한반도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작년부터의 가뭄도 심상치 않다. 누가 이런 대기의 변화를 감시할 것이며 최대한의 이용에 대한 지식을 공급할 것인가?

초대회장 국제표박사 선임

측우기에 의한 강우 측정 네트워크 설치로 대표되는 조선조까지의 찬란했던 기상학 업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맥을 잇지 못한 후손들이 되었다. 서구문명을 먼저 수용했던 일본의 구한말 한국 강점계획의 진행에 따라 새로운 학문인 것처럼 기상학이 들어왔다.

기상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국립중앙관상대로 자리잡았다. 그 후 6·25를 거치면서 1958년에야 서울대에 처음으로 천문학이 따라 붙은 천문기상학과가 설립되었다. 기상학 인구가 늘면서 기상학의 학문발전과 기상학 보급을 목적으로 드디어 한국기상학회가 1963년 12월 19일 구 서울대 문리대에서 대망의 창립을 보게 되었다.

당시 창립 총회에 참석했던 인원이 60여명이었다. 초대회장으로는 당시 중앙관상대(지금의 기상청 전신) 대장이었던 국제표박사가 선임되었다. 그 후 1990년에는 사단법인으로 과학기술처에 등록되었으며, 서울대 대기과학과의 기상관측소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현재는 회원수가 5백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25개 기관이 특별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림1>은 기상학회 회원의 기관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1958년 서울대에 천문기상학과가 설립된 후 기상학과와 천문학과가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고 다시 기상학과가 대기과학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금은 연세대(1968), 경북대, 강릉대(1988), 부산대, 부산수산대(1989) 그리고 공주대(1993)에 대기과학과가 설립되어 기상학(대기과학)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다.

학회지는 연간 4회씩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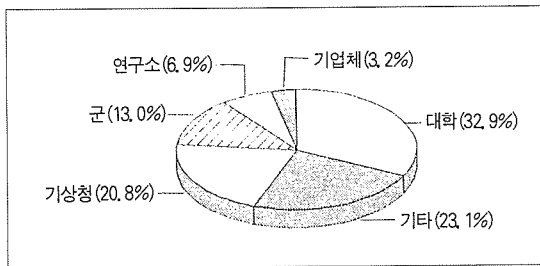
기상학회는 1965년 논문 5편, 연구노트 2편을 수록한 학회지 창간호를 발간한 이

후 84년까지 매년 1~2권, 88년
까지 매년 3권, 89년 이후에는
매년 4권씩 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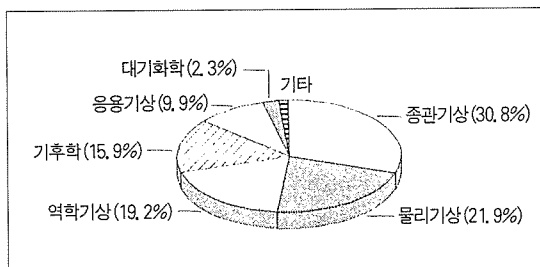
그간 학회지에 실렸던 논문의
분야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 <그
림2>이고 학회지에 발표되는 논
문 발표숫자의 증가 추세를 나타
낸 것이 <그림3>이다. 학회의 소
식 전달을 위해서는 학회지를 이
용해 왔으나 1991년 이후는 「대
기」를 연 2회 발간하여 학회 활
동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창립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년
정기학술발표회를 1년에 2회(봄,
가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특히 학
회 및 학문발전에 공이 큰 회원에
게 공로상(86년 이후 9명), 최근
5년간 기상학회지에 게재된 학술
논문 저자중 학술적 공헌이 큰 회
원에게 운재학술상(1980년 이래
8명)을, 최근 2년간 국내외 유명
학술지에 우수 논문을 게재한 회
원에게 송천학술상(1991년 이래
3명)을 수여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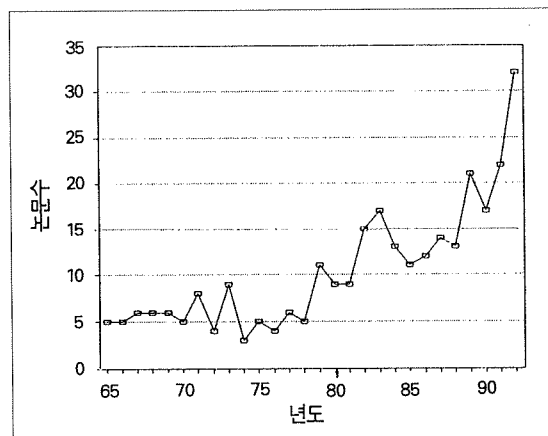
기상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해 학회 내에 학회상 포상을 위
한 포상위원회, 학회 간행물의 편집·
출판을 위해 편집위원회, 학술 교류와
진흥을 위해 학술위원회, 대기과학용
어의 심의 보급을 위해 대기과학용어
심의위원회, 기상학 연구개발과 기상
지식의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위원회,
그리고 각급 학교 기상교육 발전을 위
해 교육위원회를 두어 해당분야의 활
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용어심의위원회에서는 수
년에 걸쳐 대기과학 용어에 대한 심의
를 마치고 인쇄중에 있어 곧 대기과학
용어집이 발간될 예정이다.



〈그림1〉 한국기상학회 회원의 기관별 분포현황



〈그림2〉 한국기상학회 발표논문의 분야별 분포현황



〈그림3〉 연간 한국기상학회지 발표논문수 변화 추이

연구는 先進, 장비는 미흡

현재 대기과학(기상학)을 일상 업무
로 다루고 있는 곳으로는 기상청과 공
군 기상부대가 있다. 일상 현업적 기
상업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증진하는 데에는 대기과학에 대한 계
속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함은 당
연하다.

우리나라의 대기과학분야 연구의 질
적 수준은 분야에 따라서는 이미 세계
적 수준에 도달되어 있다. 국내에서 생
산된 개인 연구논문이 외국의 유명 학

술지에 게재되는 경우가 증가하
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수준의
논문이 국내 학회지에도 많이 게
재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모형 연구나 이론적인 연구에서
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어 있다
고 생각되지만, 아직도 고가의
특수 첨단장비가 동원되는 대형
관측 연구분야에서는 경험 부족
과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때
문에 아직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
준이라고 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각종 모델들의 검
정과 기상현상의 실제적인 구조
파악과 변화 메커니즘 규명을
위해 집중적인 입체관측이 기상
학회와 기상청을 중심으로 시도
되고 있어 연차적으로 첨단장비
들을 동원한 국제 공동연구 형
식의 종합관측 프로젝트가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반
도와 주변지역의 대기의 상황과
변화에 따르는 악기상 출현과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을 증진하
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우리 대기과학분야에서는 우리 지구
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연구에
적극적인 참여로 지구 자체와 우리 주
변의 기상자원을 유지·이용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앞장서야겠다.

한편 기상예보업무분야에 제한적으
로나마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므로써 기상학이 이제까지의
경우보다 우리들의 실생활에 좀더 가
까이 느껴지게 되는 좋은 전환점이 되
어 일반 국민의 좋은 벗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㉓